

추석명절 가정예배 가이드



시작기도 ————— 목상기도 드림으로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 송 ————— 28장 ————— 다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대표기도 ————— 가독 중(뒷면참조)

성경봉독 ————— 잠언 3:5~8 ————— 인도자

-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설 교 ————— 가독 중(뒷면참조)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예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허락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예문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족마다 걸어온 길은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의 모든 길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심(全心)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5절)

현대인 대부분은 눈앞의 현실과 사실에만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쥘 것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유지되고 풍성해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특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6절)

하나님은 교회 안이나 교회와 연관된 영역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존재하며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6절)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공부할 때, 가정을 돌볼 때 등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고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7~8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선하고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옳은 분이시므로 우리가 선하고 옳은 일에 힘을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선하고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삶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서로 나누며 생각해 보는 것도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가족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옳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